

## 北韓의 輸出推移分析과 展望

朴 進

北韓은 최근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외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輸出이 1991년 이후 부진을 보여 극심한 外貨難을 겪고 있다. 本稿에서는 최근 북한의 輸出이 격감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들에 대한 전망을 내림으로써 북한이 무역을 통하여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최근 북한의 輸出이 격감한 것은 舊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輸入需要가 減少한 것보다는 주요 輸出시장에서 북한상품의 市場占有率이 감소한 것이 보다 중요한 原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物價의 평가절하, 經濟結核 외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輸出능력의 下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輸出의 부진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북한의 무역이 活路를 찾기 위해서는 改革·開放이라는 근본적인 政策을 통하여 生産力擴大 및 外資誘致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EU에 대한 輸出만은 委託加工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 역시 곧 資本財 부족의 限界에 부딪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外자유치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무역을 통해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본격적인 改革·開放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I. 序 言

최근 북한의 輸出규모는 1990년의 18

筆者：本院 研究委員

\* 本稿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주신 本院의 柳潤河, 李弘求 박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金益洙 박사와 일본 JETRO 서울센터의 室岡鐵夫 조사부장, 그리고 중앙대 李相萬 교수님도 초고단계에서 좋은 논평을 주셨다. 자료정리에는 盧龍煥·李侑洙 연구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어떠한 오류도 필자의 책임임은 물론이다.

억 2천만달러에서 1991년에는 8억 9천만 달러로 불과 1년 사이에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어 1992년도 북한의 輸出규모는 8억 5천만달러로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輸出의 부진에 의해 북한은 최근 심각한 外貨難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外貨難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차관도입과 해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낮은 대외신용도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범죄까지도 감수하며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이러한 외화부족 사태는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에너지 및 식량에 대한 輸入減少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에너지 및 식량의 부족은 공장의 稼動率을 저하시키고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침체시켜 북한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북한의 GNP가 계속 하락한 것도<sup>2)</sup> 북한의 外貨不足이 중요한 원인이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의 수출이 이와 같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북한은 과연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북한무역의 장래는 어떠한가? 이러한 물음은 북한경제의 회생을 점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本稿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북한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의 경쟁력 등과 같은 전반적인

수출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주요 수출시장의 輸入能力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만약 최근 北韓輸出의 不振이 舊蘇聯 및 東歐圈의 輸入需要가 經濟難으로 인하여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면 북한수출의 장래는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舊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되거나 혹은 북한이 중국, 일본, OECD, 開發國 등으로 수출선을 多邊化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수출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의 수출부진이 舊사회주의권의 수입능력 부족 등 대외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北韓의 전반적인 수출능력 부진과 같은 대내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면, 북한이 획기적인 변화의 轉機를 맞지 않는 한 수출을 통해 外貨獲得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本稿은 북한의 1989년 이후 輸出推移를 분석하여 최근 북한의 무역침체가 외부 수출시장의 수입능력감소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북한자체의 문제에 기인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수출침체를 가져온 각 요인에 대한 전망을 통하여 北韓貿易의 장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本稿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北韓貿易의 推移를 구조적인 特徵과 함께 간략히 소개한다. 제Ⅲ장은 北韓輸出의 최근 推移를 分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대외무역을 展望한다. 이어 제

1) 1994년 6월 마카오 경찰은 미국 달러 위조지폐 유통혐의로 마카오 주재 북한 공관원 2명을 포함한 북한인 5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1992년 6월 “양귀비 재배를 확대하고 외화 획득을 위하여 아편을 대대적으로 수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공공연히 마약밀매를 독려한 바가 있다. (전정환,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는 북한」, 『새물결』, 1994년 겨울호)

2) 1993년 북한의 1인당 GNP는 1989년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IV 장은 南北交易에 대한 展望을 덧붙이고, 제 V 장에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 후 글을 맺고자 한다.

## II. 北韓貿易의 推移와 構造의 特徵

### 1. 北韓貿易의 推移

#### 가. 解放에서 1970년까지

解放以前 南北韓을 합한 한국의 대외무역은 90% 가량이 日本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북한지역이 共產化된 이후 1949년에는 共產圈 국가들이 북한무역의 83.4%를 차지하게 되는 등 무역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의 무역구조는 1960년 초까지 공산권에 편중된 채 계속 이어져 전체 무역량의 90% 이상이 공산권과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표면화된 中蘇紛爭으로 인하여 양국으로부터의 원조가 급격히 감소하자, 공산권에 偏向된 北韓貿易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交易相對國을 다변화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영국, 서독, 프랑스 등 西方國家들과도 교역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에 들어서는 교역상대국이 20여 西方國家로까지 확대되어 공산권국가와의 무역은 전체 무역량의 68.2%로 감소

하게 되었다.

#### 나. 1971년(6개년계획)~1986년(제2차 7개년계획)

북한은 1971년부터 3대기술혁명수행과 산업체질개선을 목표로 6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기간중 북한은 자본 및 설비 도입에 적극성을 보여 延拂輸入을 통한 西方圈과의 교역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71년에는 8억 7천만달러에 머물던 무역 규모가 4년 만인 1974년에는 20억 5천만달러로 급증하였으며, 非共產圈과의 교역비율은 전체 무역의 38.6%로 높아졌다. 그러나 北韓은 무리한 外資導入을 추진함으로써 1975년부터는 심각한 外債問題에 부닥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輸入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연, 아연 등의 수출이 制約을 받게 되자, 1977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15억 9천만달러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어 1978년부터 시작된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중 북한은 開發途上國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켰다. 또한 1980년 10월에는 우호적인 資本主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천명하고 이들 국가들로부터 경제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입을 증가시켰다. 이에 힘입어 1980년의 무역규모는 33억 5천만달러로 크게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의 과도한 膨脹政策으로 인하여 1981년 북한경제는 外債問題가 다시 대

〈表 1〉 北韓貿易規模의 推移

(단위 : 百萬美달러)

	輸 出	輸 入	合 計	貿易收支
1970	341.0	377.5	718.5	-36.5
1971	313.1	557.6	870.7	-244.5
1972	399.8	663.9	1,063.7	-264.1
1973	483.6	894.1	1,377.7	-410.5
1974	691.8	1,357.2	2,049.0	-665.4
1975	805.9	1,155.3	1,961.2	-349.4
1976	572.3	904.6	1,476.9	-332.3
1977	752.3	836.6	1,588.9	-84.3
1978	1,189.9	1,002.2	2,192.1	187.7
1979	1,489.0	1,379.9	2,868.9	109.1
1980	1,641.5	1,712.4	3,353.9	-70.9
1981	1,081.0	1,413.7	2,494.7	-332.7
1982	1,288.8	1,435.6	2,724.4	-146.8
1983	1,245.1	1,659.1	2,904.2	-414.0
1984	1,284.1	1,539.5	2,823.6	-255.4
1985	1,285.2	1,899.9	3,185.1	-614.7
1986	1,368.2	1,969.9	3,338.1	-601.7
1987	1,557.9	2,491.0	4,048.9	-933.1
1988	1,766.9	2,899.4	4,666.3	-1,132.5
1989	1,616.7	2,670.0	4,286.7	-1,053.3
1990	1,820.1	2,741.3	4,561.4	-921.2
1991	886.6	1,719.7	2,606.3	-833.1
1992	847.3	1,629.3	2,476.6	-7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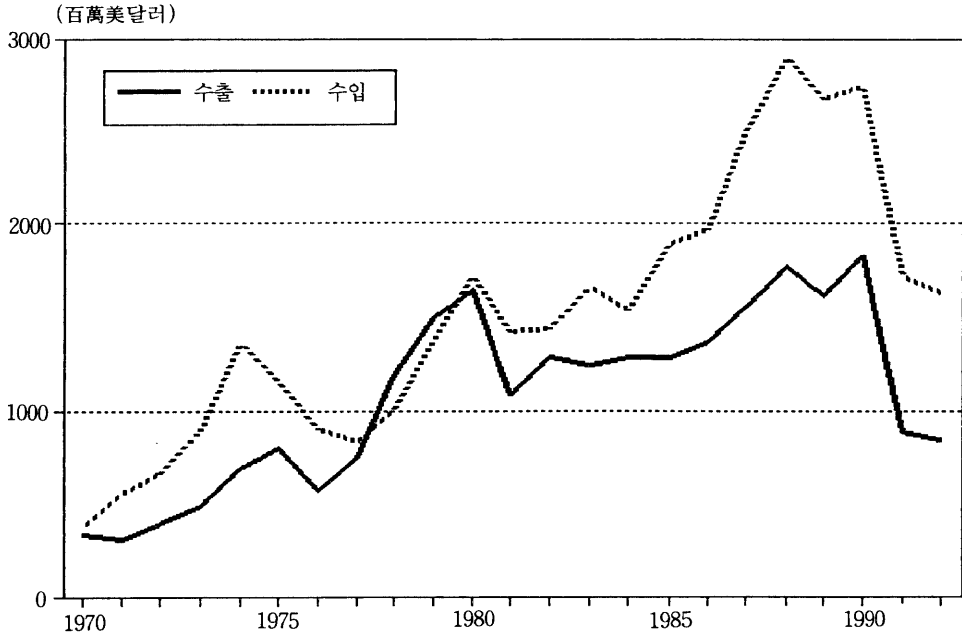
資料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各년도;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New York, 1980. 7, 1982. 8, 1985. 7, 1988. 7; 大韓貿易振興公社, 『北韓의 對外貿易動向』, 各년도;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各호; (株)ジャパン・プレス・フォト(譯), 『ソ連貿易統計年鑑』, 各년도;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各年度. (延河清・朴進・盧龍煥[1995]에서 재인용)

두되면서 마이너스 成長을 기록하였으며 무역규모도 24억 9천만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OECD와의 무역은 크게 영향을 받아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76%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外債問題 및 貿易減少를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은 1984년 9월 합병법을 공

포하는 등 경제개방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개방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외자도입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 1984년까지 북한의 무역규모는 1980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그러다 1985년 북한과 舊蘇聯과의 關係改善이 이루어지고 통상 및 경제협력을 포함한 一連의 협정들이 체결되

[圖 1] 北韓의 輸出入



<表 2> 北韓의 圈域別 輸出額 및 比重

(단위 : 百萬美 달러, %)

	舊蘇聯	中國	東 歐 <sup>1)</sup>	日 本	OECD <sup>2)</sup>	開發途上國	合 計
1970	143.2(42.0)	54.2(15.7)	35.0(10.3)	31.3( 9.2)	67.0(19.6)	10.3( 3.0)	341.0(100)
1974	200.3(29.0)	146.3(21.1)	78.0(11.3)	98.9(14.3)	74.5(10.8)	93.8(13.5)	691.8(100)
1975	209.7(26.0)	197.8(24.5)	75.0( 9.3)	58.9( 7.3)	102.3(12.7)	162.2(20.1)	805.9(100)
1980	437.3(26.6)	303.3(18.5)	125.0( 7.6)	163.7(10.0)	262.5(16.0)	349.7(21.3)	1,641.5(100)
1985	485.1(37.7)	244.8(19.1)	103.0( 8.0)	163.8(12.8)	68.5( 5.3)	220.0(17.1)	1,285.2(100)
1988	883.1(50.0)	233.7(13.2)	101.8( 5.8)	295.1(16.7)	75.1( 4.3)	178.1(10.0)	1,766.9(100)
1989	878.7(54.4)	185.4(11.4)	85.3( 5.3)	271.5(16.8)	51.8( 3.2)	144.0( 8.9)	1,616.7(100)
1990	1047.4(57.5)	124.6( 6.9)	93.1( 5.1)	273.0(15.0)	96.0( 5.3)	186.0(10.2)	1,820.1(100)
1991	171.0(19.3)	85.7( 9.7)	28.9( 3.3)	257.8(29.1)	111.5(12.6)	231.7(26.1)	886.6(100)
1992	65.2(7.7)	155.5(18.4)	6.8(0.8) <sup>3)</sup>	234.0(27.6)	165.2(19.5)	220.6(26.0)	847.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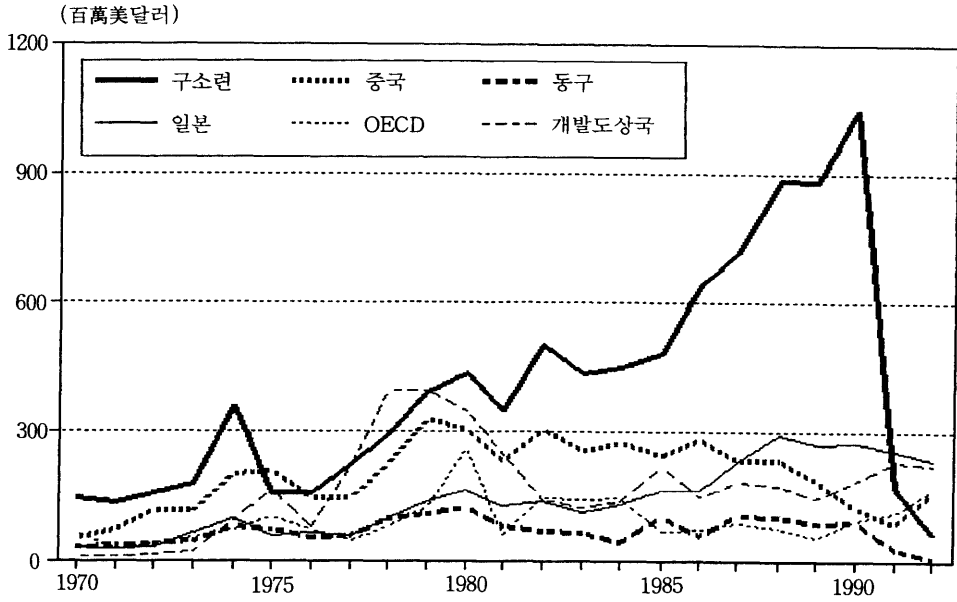
註 : 1) 동독 제외. 2) 일본 제외. 3) 폴란드 제외.

資料 : <表 1>과 同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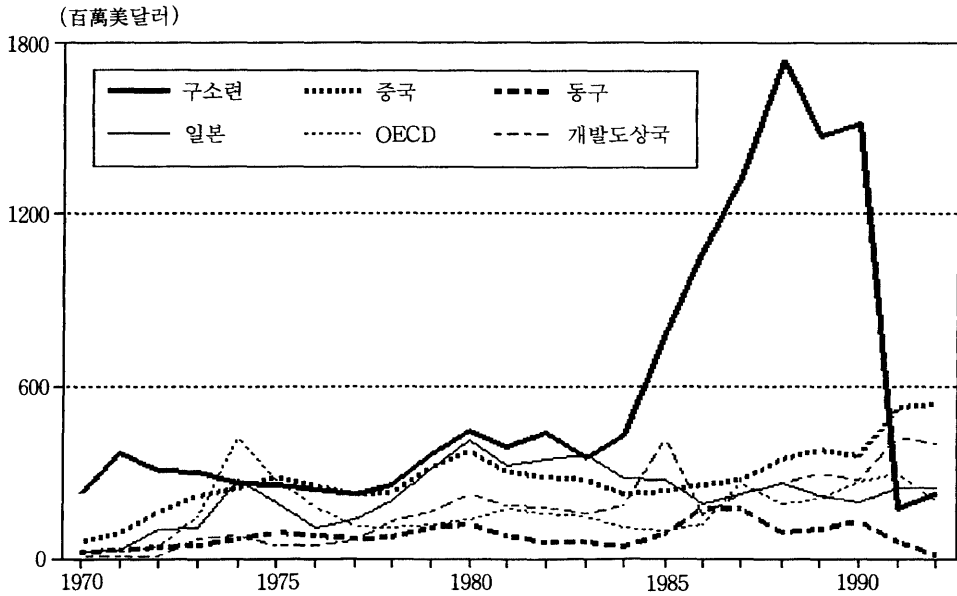
자, 북한의 무역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1986년 舊소련과의 무역이 전년대비 약 50% 증가한 데에 힘

입어 1986년에 와서는 1980년의 무역규모인 33억달러 수준을 회복하기에 이른다.

[圖 2] 北韓의 圈域別 輸出



[圖 3] 北韓의 圈域別 輸入



〈表 3〉 北韓의 圈域別 輸入額 및 比重

(단위 : 百萬美달러, %)

	舊蘇聯	中國	東 歐 <sup>1)</sup>	日 本	OECD <sup>2)</sup>	開發途上國	合 計
1970	230.0(60.9)	60.9(16.2)	26.0( 6.9)	25.7( 6.8)	26.1( 6.9)	8.8( 2.3)	377.5(100)
1974	261.3(19.3)	243.3(17.9)	70.0( 5.2)	277.1(20.4)	424.6(31.3)	80.9( 5.9)	1,357.2(100)
1975	258.8(22.4)	284.1(24.6)	92.0( 7.9)	199.8(17.3)	274.8(23.8)	45.8( 4.0)	1,155.3(100)
1980	443.1(25.9)	374.2(21.9)	122.0( 7.1)	411.7(24.1)	137.6( 8.0)	221.7(22.0)	1,710.3(100)
1985	785.5(41.3)	239.0(12.6)	85.0( 4.5)	271.8(14.3)	100.9( 5.3)	417.7(22.0)	1,899.9(100)
1988	1738.5(60.0)	345.4(11.9)	93.2( 3.2)	262.8( 9.1)	192.6( 6.6)	266.9( 9.2)	2,899.4(100)
1989	1471.8(55.1)	377.4(14.1)	102.2( 3.8)	216.7( 8.1)	207.1( 7.8)	294.8(11.1)	2,670.0(100)
1990	1516.3(55.3)	358.2(13.1)	132.5( 4.8)	193.5( 7.1)	270.0( 9.8)	270.8( 9.9)	2,741.3(100)
1991	176.1(10.3)	524.8(30.5)	56.8( 3.3)	246.4(14.3)	293.1(17.0)	422.5(24.6)	1,719.7(100)
1992	227.1(13.9)	541.1(33.2)	16.5(1.0) <sup>3)</sup>	245.2(15.1)	200.5(12.3)	398.9(24.5)	1,629.3(100)

註 : 1) 동독 제외. 2) 일본 제외. 3) 폴란드 제외.

資料 : 〈表 1〉과 同一.

#### 다. 1987년(제 3 차 7개년계획)~현재

北韓은 1987년부터 제3차 7개년계획을 시작하면서 기술혁신과 무역 등 대외경협의 확대, 발전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이 기간중 공업생산, 국민소득 등 각 부문의 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10%로 높게 제시하면서 특히 貿易에서는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률을 目標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무역규모는 1987년에는 前年 대비 21.3% 증가하였으며, 1988년에도 前年 대비 15.3% 증가를 계속하여 무역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46억 7천만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1986년에는 6억달러에 머물던 貿易赤字 규모가 2년후인 1988년에는 舊蘇聯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11억 3천만달러로 크게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8년을 정점으로 북한의 무역

규모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수입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여 무역규모가 전년대비 8.1% 축소되었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90년 들어 회복세를 찾아가 싶었으나 1990년 11월 舊蘇聯을 중심으로 한 社會主義圈의 대외무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1991년부터는 급격한 위축세에 접어들었다. 1990년에 비해 1991년 북한의 무역 규모는 42.9%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수출부문(51.3% 감소)에서 더욱 두드러져 輸入減少率(37.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 기간중 舊蘇聯으로의 수출은 1990년의 10.5억달러에서 1991년에는 1.7억달러로 83.8%나 감소하였다. 동구권으로의 수출도 1990년의 9천만달러에서 1991년에는 3천만달러로 감소하여 舊蘇聯 및 동구권으로의 수출감소액은 9억 4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총수출규모 감소액

인 9억 3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로서 舊 蘇聯 및 동구권에의 수출감소가 북한의 總輸出減少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北韓經濟에서 輸出의 役割

일반적으로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무역은 계획경제의 자원배분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총수요와 총공급의 物的均衡(material balances)을 맞추는 과정에서 국내생산으로 총수요를 쉽게 충족할 수 없는 재화를 輸入하고, 남아돌 것으로 보이는 재화는 輸出하는 것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社會主義 國家간의 무역은 「호혜평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sup>3)</sup> 「호혜평등」의 원칙은 구상무역으로 교환되는 상품의 교환비율이 국가간 호혜와 평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교역가격을 국제가격과 불일치하게 만들어 社會주의 國家간의 무역에 큰 制約要因으로 작용하여 왔다. 과거의 COMECON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5년간의 국제

가격을 평균하여 域內貿易에 적용하였던 바가 있다. 「유무상통」의 원칙은 남아도는 물자가 서로 상대국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社會주의 국가간의 무역이 청산계정을 통한 두 국가간의 雙務貿易으로 발전된 것은 바로 이 「유무상통」의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

北韓에서의 貿易도 위에서 언급한 社會主義 국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무역의 특징은 「기본적인 것, 많이 요구되는 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없는 것,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라는 것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무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sup>4)</sup>는 말로 요약된다. 위의 표현은 輸入에 대한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輸出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다. 그것은 북한에 있어 수출자체는 중요한 정책목표가 아니었으며 수입을 하기 위한 補助的 수단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本稿는 북한이 수출증대를 꾀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만약 수출이 전적으로 輸入代金 지불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면 本稿의 수출추이 분석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수출이 부진한 원인은 輸入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단순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수출보다는 輸入을 분석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本稿에서 輸出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3) 李承勳, 「北韓經濟 指導理念의 變遷과 展望」, 『南北韓 經濟協力の 當面課題와 豆滿江地域開發計劃』,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주최 제 2 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992.

4) 방완주, 『조선개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88, pp. 174~175 참조.



〈表 4〉 北韓의 食糧需給實態 推移

(단위 : 萬톤)

	총수요(A)	전년도 생산량	부족분(B)	B/A(%)	곡물수입(C)	C/B(%)
1991	640	481.2	158.8	24.81	130	81.9
1992	650	442.7	207.3	31.89	83	40.0
1993	658	426.8	231.2	35.14	109	47.1

資料 : 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 1992.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제901호, 1994. 5. 26.

북한에서도 1980년대 초반 외채문제를 경험한 이후 수출의 중요성에 눈을 뜬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5年版 경제사전을 보면 「가공무역」이 북한의 당면한 경제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김정일의 말을 수록하고 있다. 1970年版 경제사전에서 「무역」을 帝國主義列強의 착취수단이라고 극렬하게 비난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수출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sup> 특히 本稿의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1988년 이후의 무역에 있어서는 輸出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증거는 첫째, 제 3차 7개년계획이 시작되는 1987년 이후 輸入이 급증하여 貿易赤字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무역적자의 확대는 수입규모가 수출능력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수출을 늘릴 의도가 있다는 본고의 전제는 그 타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에너지 및 식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수요는 더욱 높아 가고 있어 수

출증대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 예로 食糧의 경우 1992년 이후에는 수입량이 부족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債務가 누적되어 외화획득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었다는 점도 수출이 중요시되는 이유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채무 문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93년 현재 103억 2천만달러로서 경상GNP의 50.3%에 해당하는 규모로 팽창하였다.<sup>6)</sup> 이에 따라 최근에는 채무상환을 위한 외화획득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다른 수단, 즉 직접투자 및 차관도입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므로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 II. 北韓의 輸出推移 分析

### 1. 資料說明

5) 李承勳, 前揭論文, p. 5.

6) 韓國銀行, 「1993年 北韓GNP推計結果」, 1994.

北韓은 自國의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

으므로 교역상대국의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의 무역통계를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의 무역통계는 다른 부문의 통계치에 비하여 그 량도 많고 신뢰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각 연구기관의 추정치는 여러가지 방법론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또한 교역상대국의 수입통계는 상품가격 외에 운송료 및 해상보험료 등의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CIF(Cost, Insurance, Freight)價格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비용을 제외한 FOB(Free On Board)價格을 구할 필요가 있게 된다. FOB가격이 수출을 분석하는 데에 보다 유용하다고 보는 이유는 생산비 이외의 거래비용은 수출품의 경쟁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에서는 이러한 생산비 외의 거래비용을 FOB가격 수입액의 10%로 추정하고 있다.<sup>7)</sup> 延河淸·朴進·盧龍煥(1995)에서는 IMF의 추정치를 받아들여 아래의 逆算方式을 통해 북한의 對西方交易을 추정한 바 있으며 本稿에서도 그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7) CIF와 FOB의 가격비율은 교역국가간의 지리적인 距離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엄밀한 방법이나 북한의 교역은 중국, 일본, 러시아, 홍콩 등 주변국에 총교역액의 약 70% 가량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가격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되어 단순히 10%를 모든 교역국에 적용하였다.

$$\text{北韓의 輸出} = \text{교역상대국의 對北韓 輸入} / 1.1$$

$$\text{北韓의 輸入} = \text{교역상대국의 對北韓 輸出} \times 1.1$$

단, 社會主義圈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위의 방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北韓의 輸出 = 교역상대국의 對北韓 輸入  
 北韓의 輸入 = 교역상대국의 對北韓 輸出  
 이라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북한 교역상대국의 總輸入과 世界總輸入에 대한 통계는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을 바탕으로 하였다. 과거치에 대한 조정으로 인하여 통계수치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本稿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80~84년에 대해서는 1987년판을, 1985~89년에 대해서는 1992년판을, 그리고 1990~92년에 대해서는 1993년판을 사용하였다. 1993년 통계는 IMF의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끝으로 교역대상국 분류를 위해 북한의 주요한 교역대상국 53개국을 선정하여 다음의 7개 권역별로 분류하였다.

- (i) 舊蘇聯: 1990년 이전에는 舊蘇聯, 1991년 이후에는 CIS자료를 이용하였다.
- (ii) 中國
- (iii) 東歐圈(6개국): 체코, 불가리아, 유고,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 (iv) 日本

- (v) OECD (21개국)<sup>8)</sup>: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vi) 東南亞(9개국): 홍콩,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vii) 기타國(14개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리비아,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 2. 輸出規模 分解模型

### 가. 模型說明

本稿는 Hickman, et al.(1977)이 輸出伸張要因 分解指數(Export Growth Decomposition Index)를 구하면서 사용했던 模型을 기본으로 한다. 이 模型은 李榮善(1980)에서 韓國의 輸出競爭力分析에 사용된 바 있으며, Choi(1991)에서는 北한의 무역에 적용되었다. 이상의 논문들에 비하여 本稿의 분석방법은 두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本稿에서는 基準年度를 하나로 설정하는 대신 前期의 수출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各年度의 수출규모 변화율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것은 北한의 수출규모가 장기적인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매년 심한 등락을 보였고, 특히 1991년의 변화에 분석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基準年度로부터의 추세분석보다는 전년대비 변화를 보는 것이 많은 정보를 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本稿는 舊소련, 중국, 일본, OECD 등 권역별 수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北한의 수출추이는 권역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으므로 권역별로 수출추이를 분석하고 그 배경을 밝히는 것은 北한무역의 장래를 전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시도로 생각된다.

本稿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호들을 사용한다.

$X_{i,t}$  :  $t$ 期 北한의  $i$ 국에 대한 수출액

$M_{i,t}$  :  $t$ 期  $i$ 국의 總輸入額

$W_t$  :  $t$ 期 世界總輸入額

$A_{i,t} = \frac{X_{i,t}}{M_{i,t}}$  :  $t$ 期에  $i$ 국 수입시장에서 北한 상품이 차지하는 점유율

$B_{i,t} = \frac{X_{i,t}}{W_t}$  :  $t$ 期에  $i$ 국 수입이 세계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Delta A_{i,t} = A_{i,t} - A_{i,t-1}$ ,  $\Delta B_{i,t} = B_{i,t} - B_{i,t-1}$

$t$ 期 北한的  $i$ 국에 대한 수출액은  $i$ 國시장에서 北한상품의 점유율( $A_{i,t}$ )과  $i$ 國의 수입이 世界總輸入額에서 차지하는 비율

8) IMF분류 Industrial Countries 중 1980~84년에 대해서는 일본과 아이슬랜드를 제외하고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를 포함하였으며, 1985~92년에 대해서는 일본과 아이슬랜드를 제외하고 터키를 포함하였다.

( $B_{i,t}$ ), 그리고 世界輸入總量( $W_t$ )의 곱으로 표시되므로 수출액의 변화 역시 이상의 세 가지 요인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요인에 모두 세계수입총량( $W_t$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계무역 규모요인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sup>9)</sup> 本稿는 北韓輸出規模의 추이에서 世界貿易規模의 변동에 따른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t$ 기 北韓의  $i$ 국에 대한 수출이 세계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R_{i,t} = A_{i,t} B_{i,t}$ )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X_{i,t} &= A_{i,t} B_{i,t} W_t \\ &= (A_{i,t-1} + \Delta A_{i,t}) (B_{i,t-1} + \Delta B_{i,t}) W_t \\ A_{i,t} B_{i,t} &= A_{i,t-1} B_{i,t-1} + \Delta A_{i,t} B_{i,t-1} \\ &\quad + A_{i,t-1} \Delta B_{i,t} + \Delta A_{i,t} \Delta B_{i,t} \\ A_{i,t} B_{i,t} &\equiv R_{i,t} \text{로 정의하면} \\ A_{i,t-1} B_{i,t-1} &\equiv R_{i,t-1} \text{이므로} \\ R_{i,t} - R_{i,t-1} &= \Delta A_{i,t} B_{i,t-1} + A_{i,t-1} \Delta B_{i,t} \\ &\quad + \Delta A_{i,t} \Delta B_{i,t} \end{aligned}$$

이상에 의하면  $R_{i,t}$ 의 변화율은 (1) 北韓의 市場占有率要因, (2) 交易相對國의 시장규모요인, 그리고 (3) 聯關要因으로 분해가 된다. 北韓의  $i$ 국에 대한 수출이 세계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의 전년대비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分解된다.

$$R_{i,t} - R_{i,t-1} \equiv \Delta R_{i,t} \text{로 정의하면}$$

9) 이 점을 지적하여 주신 李弘求 박사께 감사드린다.

$$\begin{aligned} &100 \times \frac{\Delta R_{i,t}}{R_{i,t-1}} \\ &= \frac{\Delta A_{i,t} B_{i,t-1}}{R_{i,t-1}} \times 100 \quad \text{시장점유율요인(1)} \\ &+ \frac{A_{i,t-1} \Delta B_{i,t}}{R_{i,t-1}} \times 100 \quad \text{교역시장규모요인(2)} \\ &+ \frac{\Delta A_{i,t-1} \Delta B_{i,t}}{R_{i,t-1}} \times 100 \quad \text{연관요인(3)} \end{aligned}$$

## 나. 輸出規模의 決定要因

### <北韓의 市場占有率要因>

특정국, 예컨대 中國의 수입규모가 世界總輸入額과 같은 비율로 증가한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각 國家가 中國市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전년도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北韓이 中國시장에서 차지하는 占有率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면 北韓의 中國에 대한 輸出能力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北韓의 수출능력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수출상품의 質과 價格 등의 競爭力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生産規模 역시 중요하다. 특히 北韓의 경우처럼 에너지, 원부자재 등의 결핍으로 생산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셋째, 北韓산업의 상품구조의 변화 역시 수출능력의 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소득탄력

성이 큰 품목, 즉 世界總輸入額이 증가하면서 다른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需要가 빨리 상승하는 품목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수출증대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무역규모가 작아 이러한 상품구조의 변화요인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는 일정하더라도 輸入需要의 品目變化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바뀌는 효과도 本稿의 모형에 의하면 市場占有率要因에 포함되게 된다. 중국내에 건설붐이 일어 철강에 대한 輸入需要가 급증한 것이 북한의 철강수출을 증가시킨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중 네번째 요인은 위의 세가지 요인과 달리 북한경제와는 관련 없는 對外興件의 변화이므로 오히려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 요인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효과를 市場規模要因으로 분리해 내지 못한 것은 商品別 分析을 하지 않은 데에 연유한다. 상품별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수출규모가 매우 작아 분석의 유의성이 낮기 때문으로서 앞으로 북한의 수출규모가 확대될 경우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交易相對國의 市場規模要因 및 聯關要因〉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능력이 전년도에 비하여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수입능력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對中國수출도 증가하

게 될 것이다. 이때 중국의 상대적 수입능력은 世界總輸入額에서 중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된다. 만약 世界總輸入額 및 북한의 수출능력이 일정하더라도 世界總輸入額에서 중국의 輸入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면 북한의 對中國수출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聯關要因은 북한의 시장점유율요인과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로서 두 비율의 곱으로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分析結果

먼저 세계총수입, 각국의 총수입, 그리고 각국의 對北輸入額을 이용하여 〈附表 1〉에서 〈附表 8〉까지를 작성한 후 이를 앞 페이지의 수출증가율 분해식에 대입하여 다음 〈表 5〉를 도출하였다.

북한의 對舊蘇聯 수출이 1991년 들어 급격히 감소한 이유로는 일단 舊蘇聯의 내부경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附表 1〉에서 舊蘇聯의 수입이 세계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의 1.71%에서 1991년에는 1.38%로 하락하였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舊蘇聯의 무역상대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북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表 5〉 北韓의 圈域別 輸出增加率 要因分析

(단위 : %)

		1989	1990	1991	1992
舊蘇聯	(*)	-8.1	4.1	-84.3	-64.6
	(1) 시장점유율요인	-9.1	38.9	-80.5	-60.9
	(2) 교역시장규모요인	1.1	-25.0	-19.5	-9.4
	(3) 연관요인	-0.1	-9.7	15.7	5.8
中 國	(*)	-26.7	-41.3	-33.8	68.5
	(1) 시장점유율요인	-25.7	-27.0	-41.4	42.0
	(2) 교역시장규모요인	-1.3	-19.6	13.0	18.7
	(3) 연관요인	0.3	5.3	-5.4	7.8
東歐圈	(*)	-22.6	-4.7	-70.1	-78.2
	(1) 시장점유율요인	-13.9	9.9	-68.7	-79.2
	(2) 교역시장규모요인	-10.1	-13.3	-4.4	4.8
	(3) 연관요인	1.4	-1.3	3.0	-3.8
日 本	(*)	-15.0	-12.2	-9.1	-15.7
	(1) 시장점유율요인	-17.7	-10.4	-6.1	-7.8
	(2) 교역시장규모요인	3.3	2.0	-3.2	-8.6
	(3) 연관요인	-0.6	0.2	0.2	0.7
OECD	(*)	-36.3	61.8	11.8	37.5
	(1) 시장점유율요인	-36.0	62.2	14.2	40.8
	(2) 교역시장규모요인	-0.4	-0.2	-2.1	-2.3
	(3) 연관요인	0.1	-0.1	-0.3	-1.0
東南亞	(*)	-21.4	-1.9	-21.6	-18.9
	(1) 시장점유율요인	-26.9	-7.5	-27.8	-24.6
	(2) 교역시장규모요인	7.4	6.0	8.6	7.5
	(3) 연관요인	-2.0	-0.4	-2.4	-1.9
其他國	(*)	-82.9	1,012.7	268.2	-2.3
	(1) 시장점유율요인	-83.0	982.0	233.1	-15.3
	(2) 교역시장규모요인	0.7	2.8	10.5	15.4
	(3) 연관요인	-0.6	27.9	24.6	-2.3

註 : \*는 북한의 각 권역에 대한 수출이 세계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율  
= (1) + (2) + (3)

수출이 舊蘇聯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78%에서 1991년에는 0.35%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2년에는 0.14%로 더욱 낮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舊蘇聯에 대한 수출은 다른 국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表 5>에서 확인된다. 1991년 북한이 舊蘇聯에 수출한 금액이 세계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84.3%가 감소하였는데, 舊蘇聯의 시장규모요인은 전년대비 19.5%, 북한의 시장점유율효과는 전년대비 80.5% 감소하여 시장점유율요인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91년 이후 북한의 舊蘇聯에 대한 수출이 격감한 것은 舊蘇聯의 전반적인 시장규모가 축소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상품이 舊蘇聯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 1991년부터 적용된 루블貨의 300%平價切下를 들 수 있다.<sup>10)</sup> 루블貨를 기준으로 한 수출액이 변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달러표시 수출액은 루블貨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1/3 수준으로 감소할 수밖에

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의 舊蘇聯에 대한 수출액 통계는 북한의 원화기준 수출액을 달러로 환산한 것이 아니라 舊蘇聯의 대북 수입액으로부터 逆算한 것이므로 루블貨를 기준으로 하여 달러로 환산되었음을 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舊蘇聯에 대한 1991년의 수출액은 그 전년도에 1/6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었으므로 환율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그 감소폭은 지나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환율변화 외에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舊蘇聯의 對北韓 교역방식이 1990년 11월 「조·소 무역결산체계 변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과거의 清算計定方式에서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硬貨決濟方式으로 바뀐 것도 북한의 舊蘇聯 수입시장 점유율을 감소시킨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硬貨決濟方式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북한의 수출능력이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북한이 舊蘇聯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사회주의 무역의 특성상 그에 대응하는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991년 이후에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1992년 북한의 전반적인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舊蘇聯에서의 輸入은 오히려 전년대비 28.96%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은 61.87% 감소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2년의

10) 루블貨의 對美달러 환율은 1990년의 美1달러 = 0.5847루블에서 1990년 11월 11일을 기하여 美1달러 = 1.7466루블로 약 300% 절하되었다.

북한과 舊蘇聯간의 무역이 상당부분 청산 계정에 의거했음을 상기할 때 북한의 수출 능력감소는 이제 수입과 관계없이 축소되고 있지 않느냐는 시사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56개국에 대한 수출입간의 상관계수를 조사해 본 결과 1990년까지는 0.98 수준으로서 각국마다 수출액과 수입액이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1년에는 0.68로 나타나 수출과 수입의 대응관계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의 생산력 축소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도 1차 에너지 공급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부문이 탄광의 深部化, 채탄설비의 노후화, 근로의욕의 감퇴 등으로 1991년 이후 감소세에 있다. 1차 에너지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도입량 역시 1989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에너지 총공급은 1991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북한의 곡물생산 역시 199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근로의욕 감퇴 등 북한의 전반적인 생산력 저하의 한 요

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곡물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데에는 경우에 따라 冷害와 같은 자연조건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으나 그 보다는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의 부족과 함께 근본적인 근로의욕의 저하가 더욱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경제는 1990~91년에 접어들면서 경제 각 부문에서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개발초기의 북한경제는 노동력 동원, 부존자원의 개발 등 생산요소의 동원을 통한 外延的 成長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탄, 산림자원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이 고갈되어 가자, 북한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이러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소위 內延的 成長으로 이행해야 하는데, 체제의 한계로 노동력이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자, 이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 것이며 이때가 바로 1991년을 전후한 시기인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GNP에서 1990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表 6〉 北韓의 에너지 供給推移

	석탄(千M/T)	원유도입량(萬톤)	총공급량(千TOE)
1990	33,150	252	27,292
1991	31,100	189	23,463
1992	29,200	152	21,834
1993	27,100	136	-

資料: 統一院,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각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각년도.



하락했던 원인에 대한 위의 세가지 설명 중 루블貨의 하락은 舊蘇聯과의 무역에만 적용되며 경화결제는 사회주의권과의 무역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요인은 북한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북한의 대외시장 점유율이 감소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海外市場에서의 占有率 減少는 비단 舊蘇聯, 중국 등 사회주의권에 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日本 및 동남아 市場에서도 1989년 이래 점유율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1~92년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수입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對日輸出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및 동남아권과의 무역은 루블貨의 하락 및 경화결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1989년 이래 일본과 동남아에서 북한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북한내부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 하겠다.

〈表 5〉에 의하면 북한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눈에 띈다. 첫째, 1992년의 북한의 對中國 수출은 전년대비 68.5%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약 1/4은 중국의 건설경제붐으로 인한 전반적인 수

입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나 수출증가의 거의 대부분은 북한의 中國市場占有率 상승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對中國 강철수출이 6배 이상 증가하였던 데에 연유한다.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수입능력이 상승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건설붐으로 인하여 북한의 주요 수출품<sup>11)</sup>인 鋼鐵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中國市場占有率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강철생산량은 1991년 316.8만톤이었으나 1992년에는 오히려 179.3만톤으로 격감한 바 있다. 강철의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확대했으니 그로 인한 북한내부의 어려움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92년 북한의 중국시장내 점유율이 증가한 것은 中國市場의 特需를 맞아 철강의 내수공급을 축소하여 수출로 전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990~91년 사이 북한은 기타國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부터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이 시작되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출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sup>12)</sup> 과거 舊蘇聯에 집중되던 원유수입이 이란으로 다변화되면서 舊蘇聯으로 향하던 수출물량의 일부가 이란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란으로의 수출증가는 北韓商品의 경쟁력 등 북한내부의 수출능력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북한의 시장점유율효과가 1992년부터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

11) 철강은 1992년 對中國 수출의 43.0%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12) 기타國에의 수출 중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한다.

을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위의 <表 5>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꾸준히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圏域이 일본을 제외한 OECD이다. 1990년 이후 1993년까지 북한의 對OECD수출액은 OECD권의 전반적인 시장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市場占有率 增加에 힘입어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992년의 경우 OECD로부터의 輸入比重은 감소하였음에도 市場占有率은 증가함으로써 여타 국가들과의 무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수출은 유독 OECD권에 대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이 OECD와의 무역 형태를 他國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수출증대를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사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최근 몇년간 북한의 對OECD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은 무엇인가?

日本을 제외한 OECD國家 중 북한의 가장 중요한 貿易相對國은 獨逸이다. 북한의 對OECD 수출 중 독일에의 수출이 약 半을 차지하고, 스페인·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가 나머지를 차지하며, 그 외의 국가들에는 매우 미미한 수출량을 보이고 있다. 獨逸에 대한 북한의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볼 때 1991년의 경우에는 80.7%, 1992년의 경우에는 79.7%가 편물 및 의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편물 및 의류수출은 전액 위탁가공에 의하여 수출되고 있다. 북한의 對獨

逸 위탁가공수출의 추이를 보면 1991년에는 전년대비 2,989만달러 증가하였으며, 다음해에는 다시 1,135만달러 증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중 북한의 對獨逸 총수출 증가액이 각각 1,824만달러와 1,515만달러였음을 생각할 때 북한의 독일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위탁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對獨逸, 나아가 對OECD시장점유율 증가는 대부분이 의류부문의 위탁가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북한이 전반적인 생산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에 힘입어 독일 등 OECD 국가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여 왔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독일은 북한에게 原副資材뿐만 아니라 설비까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설비제공 위탁가공을 주로 하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제한된 설비만으로도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의 입장에서조차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의류 등을 단순교역에 의하여 수입하는 것보다는 북한에 원부자재의 가공을 위탁한 후에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이점을 가졌던 것이다. 그 이점은, 첫째 국내의 원부자재 생산업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둘째 디자인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통하여 가공과정중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셋째 국내의 유희설비를 반출하는 수출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점

〈表 7〉 北韓의 對獨逸 輸出

(단위 : 萬美달러)

	1990	1991	1992
총수출(A)	5,377	7,201	8,716
위탁가공수출(B)	2,825	5,814	6,949
B/A (%)	52.5	80.7	79.7

資料 : 김장환,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무공자료 92-58, 1992.

이다.

또한 북한도 직접투자에 비하여 자본주의에 의한 「정신오염」을 극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찍이 위탁가공을 장려해 왔다. 1992년 10월 발표된 「합작법」도 결국은 위탁가공무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다. 경제침체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어려워진 북한은 그 돌파구로 위탁가공무역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위탁가공무역은 북한무역의 장래를 점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4. 北韓貿易 展望

이하에서는 과연 북한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교역시장의 수입능력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가장 큰 수출시장인 日本의 경제는 그동안의 침체를 벗고 1995년에는 본격적으로

불황국면을 탈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는 1994년 하반기에 1.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995년에는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 2의 수출시장인 中國도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을 견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부의 안정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나 9%대의 고도성장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13)</sup>

동남아 경제도 앞으로 高成長을 견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1995년에도 7%의 성장률은 무난하리라 보인다. 최근 주요한 수출국으로 등장한 獨逸도 통일의 후유증을 벗어나고 있어 수입능력의 향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은 1994년 한 해 1.5%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995년에는 구동독지역의 건설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3%에 달할 전망이다. 동구권의 경제상황도 앞으로 더욱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1995년에는 3%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는 그간 10%대에 달하던 성장감소율을 둔화시키는 데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교역상대국의 수입능력에

13) 한국무역협회, 「1995 세계경제환경전망」, 『월간무역』, 1994. 10.

대해서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서 수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는 北韓의 경제상황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

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非能率이 내부의 개혁 없이 쉽게 타개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북한은 몇 가지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내놓고는 있으나<sup>14)</sup> 이러한 북한의 노력이 과연 체제의 非能率을 극복하고 경제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거 북한은 크고 작은 수많은 부분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예컨대, 1981년 ‘새로운 관리체계’를 시작으로 북한의 공업관리체계는 지역별 관리체계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85년부터 기존의 국영기업들을 집단화하여 ‘연합기업소’로 개편하였다. 1984년에는 ‘독립채산제’를 공장과 기업소 전 부문에 확대 실시하였으며, 1986년에는 ‘성과급 임금제’까지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국가통제가 유지되었으므로 실질적인 기업의 채산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위의 개혁조치들은 성공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가격자유화, 사유재산제도 등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부분적인 개혁조치로는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고 본다.

북한경제의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外資導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에너지輸入을 위한 外貨가 필요한 반면 외화를 벌기 위해서는

14) 1993년 12월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향후 3년간(1994~96)을 「사회주의 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농업 및 경공업과 함께 무역에 힘을 쓸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올해 4월에 있었던 제 7차 최고인민회의의 예산안 보고에서는 「인민경제비를 지난해에 비해 3.2% 증액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농업, 경공업, 대외무역을 위해 방대한 자금이 쓰여질 것」이라고 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위의 3대 제일주의가 구현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중 대외무역발전을 위해 유색금속, 시멘트 등 수출품 생산을 확대하고 신용을 철저히 지키며 가공무역, 되거리무역(仲介貿易), 中繼貿易, 경제기술협조, 대외건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올해 들어 공장 및 기업소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중공업부문의 생산단위들이 연합기업소에서 종합기업소 또는 일반공장으로 축소되는 데에 비해 경공업, 무역과 관련된 산업부문의 생산단위들은 조직규모가 종전보다 격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에 의한 무역행위만을 인정하던 과거의 국영무역제를 완화하여 「외화벌이」의 침병인 120여개 무역상사에 대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신의주, 남포의 經濟特區說, 나아가 농지소유와 경작의 분리 움직임까지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또한 무역제일주의를 對外에 과시하기 위하여 북한은 올 4월 청진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항 규정을 내놓았다(그러나 북한의 자유무역항 규정은 실질적인 적용보다는 북한법의 일반적인 특징의 하나인 선언적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그 예로 측심, 전파탐지, 무선통신의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 자유무역항에 대한 북한의 「자유」허용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수출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는 생산력의 향상 없이 외화를 버는 방법, 즉 외자유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1984년 이후 1992년 말까지 북한에 진출한 外國資本의 투자건수는 약 140여건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나마 이중 110건만이 확인되고 있다. 투자총액은 약 1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5)</sup> 이중 90%가 조총련계 日本企業에 의한 것으로서 101건에 9천만달러 정도의 규모이며, 일본을 제외한 서방국가의 대북진출은 1984년 이후 1992년까지 총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외자유치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로는 먼저 果實送金, 投資保障, 二重課稅防止, 紛爭調停 등 전반적인 투자관련 제도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으며, SOC 등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점도 빼어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북한이 체제수호적인 대외개방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다 본격적인 개방정책으로 전

환하지 않는 한 북한은 해외자본 유치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投資誘致 외에 북한에게 있어 중요한 外資導入源으로서 일본 조총련의 존재를 들지 않을 수 없다.<sup>16)</sup> 현재 일본 조총련은 연간 8억달러로 추산되는 자금을 북한에 送金하고 있으며, 일본의 尖端産業技術을 북한으로 들여오는 창구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송교포들이 북한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조총련사회에 알려져 조총련의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북한이 조총련에 과도한 送金을 강요하자 북한과 조총련의 葛藤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차기 朝總聯議長 선출을 둘러싸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조총련의 북한내에서의 경제적 역할은 어느 정도 유지되기는 하겠으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앞으로 조총련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北韓의 수출에 대하여 비관적인 展望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의 낮은 대외 신용도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경제위원장은 「신용은 무역에서 생명이며 시장을 넓혀 나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동안 외국기업이 북한과 거래시 최대 隘路事項이던 契約履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債務不履行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北韓의 對外信用度는 쉽

15) 室岡鐵夫, 「北韓·日本の 經濟協力 展望」, 『北韓의 投資環境과 南北韓 經濟協力の 政策課題』,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주최 제3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993.

16) 北美地域 韓人 離散家族의 대북송금은 1993년의 경우 약 60만달러로서 상대적으로 큰 액수가 아니다.

게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7)</sup>

끝으로, 북한의 수출능력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애로요인을 갖는다. 西方先進國들과의 公式外交關係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외에도 WTO와 같은 國際經濟機構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반 淸國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GSP 수혜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北韓과 美國의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러한 國際

貿易秩序에 쉽게 편입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당분간은 제도상의 애로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으리라 보인다.

현재의 貿易環境下에서 북한의 희망은 委託加工으로 귀착된다. 과연 위탁가공무역은 앞으로 계속 신장되어 북한의 외화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북한의 海外投資誘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본재의 낙후를 보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單純委託加工만으로는 곧 생산능력의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생각되며, 委託加工貿易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합작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북투자가 활성화될 것 인지의 여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開放意志에 달려 있으므로 북한이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대외개방을 견지할 경우, 委託加工貿易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내부의 開放意志가 불변이라고 볼 경우 북한의 수출증대는 대외적인 무역환경의 변화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의 貿易環境이 變化하기를 기대하는 북한의 희망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美國과의 關係改善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禁輸措置가 완화되는 것이며, 둘째는 핵문제의 타결에 힘입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 수교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하여 세가지의 통상규제법을 적용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1989

17) 한 예로 러시아와 교역하고 있는 북한의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체가 수출세를 내지 않고 밀무역을 하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 상품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금결제불이행 총액이 2,000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농산물수출 전문업체인 닥코 엔터프라이즈社는, 미국기업으로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공식무역을 인가받았으나 북한이 860만달러의 대금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북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18) (i) 적대국 통상규제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戰時 및 국가비상시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가 및 그 국민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북한과 쿠바 등이 적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ii)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1979년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외교정책을 이유로 수출통제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법률이다. 商務省은 현재 수출대상국가를 7개 그룹(Q,S,T,V,W,Y,Z)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북한은 쿠바 등과 함께 Z그룹 국가로 분류되어 수출허가의 발급이 금지되고 있다. (iii) 통상법(Trade Act of 1975)의 최혜국대우 관련규정: 공산국가에 대한 최혜국대우는 해당국가가 주민의 자유로운 이민을 허용할 경우에만 부여한다.

년 4월 對北韓 수출통제지침의 개정에 따라 人道的 물품에 한해 개별적인 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對北韓 무역액은 1988년 이후 1992년까지 수출 68만달러, 수입 54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최근 대북경제 제재조치를 부분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對美輸出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인 것으로 생각된다. 中國과의 예에서 보는 미국의 禁輸措置解除는 매우 점진적 이어서<sup>19)</sup> 급격한 受惠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북한상품의 낮은 경쟁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류 및 의류가 미국시장에서 中國 등과의 경쟁에서 이

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日本 등 제3국의 對北投資에 있어 隘路要因으로 지적되어 온 수출시장의 缺如問題가 어느 정도 해소됨으로써 제3국의 대북투자가 촉진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對北投資는 그에 앞서 果實送金規定, 投資保障協定 등의 제도적 미비문제와 정치적 불안정, SOC未備 등 투자환경의 열악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진정한 개방의지의 결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美國市場이 열린다고 해서 對北投資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완화조치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평가된다.

북한이 기대하는 무역환경의 또 다른 일대전환은 核問題 해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외국자본의 流入이다. 美國과 유럽의 資本은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진출을 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따른 修交資金<sup>20)</sup>이 북한에 유입되면 북한은 당면한 식량 및 에너지난의 타개와 함께 일본자금을 이용한 생산력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일본으로서도 북한은 유일한 未修交國으로서 東北亞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북한과의 經協에 적극적이며 日本의 기업들도 유일한 특수시장으로서 주목을 하고 있다.<sup>21)</sup>

19) 미국은 1971년 중공과의 관계개선으로 적대국 통상규제법상의 교역금지조치를 해제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수출관리법상의 등급을 Z에서 Y로 상향조정하였으며, 1980년에 가서야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현재까지도 매년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核협정 이행이라는 특수한 전제조건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 수교자금의 규모는 현재 북한은 100억달러까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50억달러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1965년 韓日間의 청구권자금 5억(무상 3억, 유상 2억)은 현재의 37억달러(일본의 도매물가기준)에서 73억달러(일본의 소매물가기준)에 해당한다. 이로부터 일본과 북한의 수교자금구모를 어렵잡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1) 일본의 기업들은 본격적인 대북투자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내의 인맥구축, 타당성조사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통신 Infomax, 1993. 5. 17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1993에서 재인용)

日北修交로 인하여 어림잡아 60억달러 내외의 청구권자금이 한일협정의 경험대로 약 10년간에 걸쳐 북한에 유입된다고 가정할 때 북한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먼저 청구권자금의 일부는 경수로지원에 있어 일본의 역할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변원자로 해체에 사용될 것이다. 또한 유상자금의 일부는 앞으로 10년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약 11억달러로 추산되는 대일 채무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sup>22)</sup> 나머지가 10년간 일정하게 나누어진다면 북한에는 매년 4억달러 정도가 유입되게 된다. 이 중 일부는 주로 식량구매와 에너지 부문에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는 SOC부문 및 일본산 자본재 도입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4억달러의 지원은 북한의 1993년 GNP 205억달러의 약 2%를 차지하는 액수로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특히 북한의 총수출액이 10억달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일본 수교자금의 유입은 북한경제를 연명시키는 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비능률적인 경제체제로는 수교자금을 활용한 공급부문의 반응을 유도해 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개혁·개방 없이는 북한경제가 자생적인 활로를 찾기는 힘들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수출도 대폭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IV. 南北交易 展望

남북교역은 북한의 무역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요인들 외에도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非經濟的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 왔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것도 1988년 발표된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에 의하여 한국의 대북물자교류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 이후부터였다. 1988년 이후 불과 4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南北交易은 급격히 신장되어 1991년도에는 그 규모가 1억 9천만달러에 이르렀으나 南北交易은 1991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한국에 수출할 물품이 1차상품 외에는 없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1994년 11월까지 한국이 반입한 북한상품 중 철강금속 및 광산물이 66.3%, 농수산물 및 한약재가 19.1%로서(금액기준) 1차상품이 85.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반입의 11.2%를 차지하는 섬유류는 반입액의 약 79%가 그나마 위탁가공에 의한 것으로서 북한상품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북한이 한국산 상품을 반입할 능력이나 의향이 없다는 것도 다른 이유이다. 남한의 공산

22) 1965년 당시 한일협정에서도 이와 같은 선택이 있다.



〈表 8〉 年度別 搬出入 承認現況

(단위 : 千美달러)

	搬 入	搬 出	小 計
1988	1,037	-	1,037
1989	22,235	69	22,304
1990	20,354	4,731	25,085
1991	165,996	26,176	192,172
1992	200,685	12,818	213,503
1993	188,528	10,262	198,790
1994	202,952	24,959	227,911

註 : 1988년은 10~12월 실적임.

資料 :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42호, 1995. 1, p. 11.

〈表 9〉 南北韓 委託加工交易 承認現況

(단위 : 千美달러)

	件 數	搬 入	搬 出
1991	1	23	13
1992	10	556	414
1993	44	4,385	3,611
1994	107	16,373	11,787

資料 :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42호, 1995. 1, p. 18.

품은 반입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체제 유지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주저하고 있으며, 곡물반입은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OECD의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한의 委託加工은 南北交易에 있어서도 하나의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교역의 전반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委託加工交易은 전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의 경우 4.0%에 불과하였으나 94년 들어 남북교역 승인총액의 12.4%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1995년의 南北交易 展望은 어

떠한가?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크게 보면 북한의 交易能力과 交易意思, 그리고 남북관계로 요약될 것이다. 먼저 북한의 交역능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최근에 남북교역이 鈍化된 것도 결국은 북한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의 輸出推移에 대한 앞의 분석결과는 남북교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北韓經濟가 나아지지 않는 한 南北交易은 앞으로 별다른 進展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반면 北韓의 北南交易에 대한 熱意는 상

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南北交易은 한국보다도 북한에게 훨씬 중요하다. 우선 규모면에서 南北交易額은 1993년도 한국의 貿易總額 1,660억 달러의 0.12%에 불과하나 북한의 貿易總額에서는 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貿易收支面에서도 북한은 1992년과 1993년 동안 모든 圈域과의 무역에서 赤字를 보았으나<sup>23)</sup> 韓國에는 매년 1억 8천~1억 9천만 달러의 黑字를 기록하였다. 北韓의 교역능력이 停滯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수출시장으로서 韓國의 위치가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한국의 對北委託加工 貿易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 및 일본의 對北委託加工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對北委託加工은 규모나 부가가치면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sup>24)</sup> 단순봉제와는 달리 신사복 등 高附加價値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술지도가 필수적이거나 그동안 韓國技術者의 訪北이 어렵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설비제공 위탁가공 및 직항로 개설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최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기술자 방북, 설비제

공 위탁가공 등이 곧 실현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5년의 南北韓間 單純物資交易은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지 않는 한 전반적인 生産力도 정체상태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委託加工交易은 북한의 生産力 침체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여지가 있으며, 南北韓간의 위탁가공은 地理的 접근성, 言語의 동질성, 産業構造의 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독일이나 일본의 對北委託加工에 비하여 높은 經濟性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北韓은 韓國에 대한 정치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委託加工交易에 관한 한 상당한 熱意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술자 訪北, 設備提供 위탁가공이 허용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위탁가공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直航路까지 成事될 경우 한국은 1~2년내에 委託加工에 관한 한 北韓의 最大交易國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 V. 結 論

현재 북한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이다. 이 두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서는 외화획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

23) 북한은 1993년 일본과의 무역에서만은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그 규모는 약 3,300만달러에 불과하였다.

24) 1992년 북한은 독일에 6,949만달러, 일본에 6,386만달러의 委託加工輸出을 기록하였던 반면 한국에는 1993년 438만달러를 搬出하였으며, 1994년에는 1,637만달러를 委託加工 형태로 搬出하는 데에 그쳤다.

다도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외화획득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출에서 1991년 이후 극심한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다. 本稿는 북한의 수출규모가 1991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원인이 북한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수출시장에서 북한상품의 점유율 하락에 기인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만약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舊사회주의권의 輸入 여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수출이 감소한 것이라면 舊사회주의권의 경제회복과 함께 북한의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수출이 감소한 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주의권의 수입수요는 예상보다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舊사회주의 국가에서 북한상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매우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주의권 붕괴의 영향을 북한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舊사회주의권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수입수요가 향상되더라도 북한의 수출은 회복되기 어

렵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OECD권에서 북한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것은 최근 위탁가공교역이 상당한 호조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위탁가공교역은 최소한의 시설재를 가지고도 가능한 교역형태이므로 북한이 겪고 있는 현재의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외화획득의 돌파구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본재의 절대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위탁가공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본재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작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결국 북한이 앞으로 무역을 통하여 경제의 회생을 이룰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개혁을 외면한 체 體制守護的인 부분 개방만을 고집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외국자본을 쉽게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수출을 통해 경제회생을 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결국 북한이 본격적인 개방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 姜正模,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金鳳德, 「北韓의 經濟現況과 中國·北韓 經濟關係」, 『北韓의 投資環境과 南北韓 經濟協力の 政策課題』,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주최 제3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993.
- 김장한,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제901호, 1994. 5. 26.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무공자료 93-35, 1993.
- , 『9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무공자료 92-10, 1992.
- , 『북한』, 무공자료 92-20, 1992.
- ,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무공자료 92-58, 1992.
- 朴勝俊, 「南·北韓 貿易構造 比較」, 『北韓 統一研究論文集 (VI)』, 통일원, 1991.
- 朴進, 『北韓財政의 現況과 推移』, 韓國開發研究院, 1994.
- 방완주, 『조선개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88, pp. 174~175.
-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 , 『北韓總覽』(1983-1993), 1994.
- 室岡鐵夫, 「北韓·日本の 經濟協力 展望」, 『北韓의 投資環境과 南北韓 經濟協力の 政策課題』,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주최 제3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993.
- 임을출, 「93년도 북한무역의 구조적 특징과 전망」, 『북방통상정보』, 1994년 8월호.
- , 「日·北韓 위탁가공무역의 實在와 남북교역」, 『北方通商情報』, 1994. 2월호.
- 延河清·朴進·盧龍煥, 『'90年代 北韓의 對外經濟關係와 南北經協의 政策課題』, 韓國開發研究院, 1995. (출간예정)
- 李承勳, 「北韓經濟指導理念의 變遷과 展望」, 『南北韓 經濟協力の 當面課題와 豆滿江地域開發計劃』,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주최 제2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992.
- 李榮善,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比較優位分析과 展望』, 국제경제연구원, 1980.
- 李春三·崔鳳赫, 『新貿易實務論』, 박영사, 1982.
- 전정환,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는 북한」, 『새물결』, 1994년 겨울호.
- 崔信林, 『北韓의 貿易構造』, 産業研究院, 1991.

-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42호, 1995.
- 1.
- , 『북한경제종합평가』, 1992.
- 한국무역협회, 「1995년 세계경제환경 전망」, 『월간무역』, 1994. 10.
- 韓國銀行, 「1993년 北韓GNP推計結果」, 1994.
- Brada, J. C. and M. R. Jackson, “The Organization of Foreign Trade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 1978.
- van Brabant, J. M.,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and Socialist Trade Prices –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9, 1985.
- Choi, Soo-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Structure and Performance,” Northeastern University, September 1991.
- Eithier, W. J., *Modern International Economics*, 2nd ed., W. W. Norton and Company, New York, 1988.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87, 1992, 1993.
- Hickman, B. G., Y. Kuroda, and L. J. Lau, “The Pacific Basin World Trade, Part IV: An Analysis of Changing Trade Patterns, 1955-1975,” NBER Working Paper, No. 192, August 1977.
- Kim, Kwang Suk, “Foreign Exchange and Trade Regimes in North and South Korea,” *Economic Systems in North and South Korea: A Proposal for Economic Integration*, East-West Center. (Forthcoming)

〈附表 1〉 舊蘇聯의 對北貿易

(단위 : 百萬美달러)

	舊蘇聯의 總輸入 (a)	舊蘇聯의 對北輸入 (b)	$\frac{a}{\text{世界總輸入}}$	$\frac{b}{a}$
1980	44639	437	0.02293	0.00980
1981	47324	348	0.02460	0.00736
1982	44562	499	0.02483	0.01120
1983	43881	437	0.02527	0.00996
1984	42429	451	0.02296	0.01063
1985	54107	485	0.02862	0.00896
1986	52335	642	0.02536	0.01227
1987	54512	717	0.02252	0.01316
1988	62549	883	0.02257	0.01412
1989	68506	878	0.02282	0.01283
1990	58808	1047	0.01711	0.01781
1991	49195	171	0.01378	0.00348
1992	47986	65	0.01248	0.00136

資料 : 〈表 1〉과 동일.

〈附表 2〉 中國의 對北貿易

(단위 : 百萬美달러)

	中國의 總輸入 (a)	中國의 對北輸入 (b)	$\frac{a}{\text{世界總輸入}}$	$\frac{b}{a}$
1980	19505	303	0.01002	0.01555
1981	21631	231	0.01125	0.01068
1982	18920	304	0.01054	0.01607
1983	21313	254	0.01227	0.01193
1984	25953	272	0.01404	0.01048
1985	42480	244	0.02247	0.00576
1986	43247	280	0.02096	0.00648
1987	43222	236	0.01786	0.00546
1988	55352	233	0.01997	0.00422
1989	59140	185	0.01970	0.00314
1990	54449	124	0.01584	0.00229
1991	63957	85	0.01791	0.00134
1992	81739	155	0.02125	0.00190

資料 : 〈表 1〉과 동일.

〈附表 5〉 OECD의 對北貿易

(단위 : 百萬美달러)

	OECD의 總輸入 (a)	OECD의 對北輸入 (b)	$\frac{a}{\text{世界總輸入}}$	$\frac{b}{a}$
1980	1254300	288	0.64442	0.00023
1981	1181062	69	0.61399	0.00006
1982	1114878	160	0.62117	0.00014
1983	1099398	155	0.63315	0.00014
1984	1200374	162	0.64952	0.00014
1985	1258154	75	0.66555	0.00006
1986	1432448	80	0.69408	0.00006
1987	1690858	95	0.69862	0.00006
1988	1895890	82	0.68397	0.00004
1989	2044598	57	0.68121	0.00003
1990	2335352	105	0.67959	0.00005
1991	2375091	122	0.66514	0.00005
1992	2498564	181	0.64964	0.00007

資料 : 〈表 1〉과 동일.

〈附表 6〉 東南亞의 對北貿易

(단위 : 百萬美달러)

	東南亞의 總輸入 (a)	東南亞의 對北輸入 (b)	$\frac{a}{\text{世界總輸入}}$	$\frac{b}{a}$
1980	108361	NA	0.05567	NA
1981	118902	NA	0.06181	NA
1982	121535	NA	0.06772	NA
1983	123482	NA	0.07111	NA
1984	127971	NA	0.06924	NA
1985	117868	NA	0.06235	NA
1986	119769	NA	0.05803	NA
1987	151965	NA	0.06279	NA
1988	195537	183	0.07054	0.00094
1989	227407	156	0.07577	0.00069
1990	275988	175	0.08031	0.00064
1991	311374	142	0.08720	0.00046
1992	360663	124	0.09377	0.00035

資料 : 〈表 1〉과 동일.

〈附表 3〉 東歐圈의 對北貿易

(단위 : 百萬美달러)

	東歐圈의 總輸入 (a)	東歐圈의 對北輸入 (b)	$\frac{a}{\text{世界總輸入}}$	$\frac{b}{a}$
1980	68194	125	0.03504	0.00183
1981	61993	81	0.03223	0.00132
1982	49943	70	0.02783	0.00140
1983	47911	65	0.02759	0.00136
1984	46749	43	0.02530	0.00092
1985	56791	103	0.03004	0.00181
1986	60440	57	0.02929	0.00095
1987	64147	105	0.02650	0.00165
1988	65467	101	0.02362	0.00155
1989	63747	85	0.02124	0.00134
1990	63284	93	0.01843	0.00147
1991	62845	28	0.01760	0.00046
1992	70947	6	0.01846	0.00010

資料 : 〈表 1〉과 동일.

〈附表 4〉 日本의 對北貿易

(단위 : 百萬美달러)

	日本의 總輸入 (a)	日本의 對北輸入 (b)	$\frac{a}{\text{世界總輸入}}$	$\frac{b}{a}$
1980	141284	180	0.07259	0.00127
1981	142868	139	0.07427	0.00098
1982	131566	152	0.07330	0.00116
1983	126520	126	0.07286	0.00100
1984	136142	145	0.07367	0.00107
1985	130516	180	0.06904	0.00138
1986	127660	181	0.06186	0.00143
1987	150907	252	0.06235	0.00167
1988	187483	324	0.06764	0.00173
1989	209635	298	0.06985	0.00142
1990	235307	300	0.06847	0.00128
1991	236633	283	0.06627	0.00120
1992	232947	257	0.06057	0.00110

資料 : 〈表 1〉과 동일.



〈附表 7〉 기타國의 對北貿易

(단위 : 百萬美달러)

	기타國의 總輸入 (a)	기타國의 對北輸入 (b)	$\frac{a}{\text{世界總輸入}}$	$\frac{b}{a}$
1980	140387	NA	0.07213	NA
1981	158744	NA	0.08252	NA
1982	146985	NA	0.08189	NA
1983	137605	NA	0.07925	NA
1984	122408	NA	0.06623	NA
1985	97773	NA	0.05172	NA
1986	91819	NA	0.04449	NA
1987	96175	NA	0.03974	NA
1988	101265	12	0.03653	0.00012
1989	110409	2	0.03679	0.00002
1990	129998	29	0.03783	0.00023
1991	149314	112	0.04182	0.00075
1992	185526	118	0.04824	0.00064

資料 : 〈表 1〉과 동일.

〈附表 8〉 世界總輸入額

(단위 : 百萬美달러)

年 度	世界總輸入額
1980	1946400
1981	1923600
1982	1794800
1983	1736400
1984	1848100
1985	1890400
1986	2063800
1987	2420300
1988	2771900
1989	3001400
1990	3436400
1991	3570800
1992	3846100

資料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년도.

빈 면

# 研究叢書案內

- 1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A 5 新/ 122쪽  
半洋裝/ 3,000원
- 2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A 5 新/ 158쪽  
半洋裝/ 3,600원
- 3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紈 著 A 5 新/ 250쪽  
半洋裝/ 5,600원
- 4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A 5 新/ 146쪽  
半洋裝/ 3,000원
- 5 農産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共著 A 5 新/ 318쪽  
柳炳瑞 共著 半洋裝/ 7,000원
- 6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編 A 5 新/ 254쪽  
A.O. 크루거 編 半洋裝/ 6,000원
- 7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A 5 新/ 198쪽  
半洋裝/ 4,600원
- 8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A 5 新/ 294쪽  
半洋裝/ 6,600원
- 9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共著 A 5 新/ 336쪽  
L.E. 웨스트팔 共著 半洋裝/ 7,600원
- 10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A 5 新/ 236쪽  
半洋裝/ 5,000원
- 11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A 5 新/ 202쪽  
半洋裝/ 4,600원
-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季 著 A 5 新/ 250쪽  
半洋裝/ 5,600원
- 1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A 5 新/ 508쪽  
半洋裝/ 11,000원
- 14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教 編 A 5 新/ 492쪽  
半洋裝/ 11,000원
- 15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教 編 A 5 新/ 342쪽  
半洋裝/ 7,600원
- 1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A 5 新/ 532쪽  
半洋裝/ 11,600원
- 17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A 5 新/ 252쪽  
半洋裝/ 5,600원
- 18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A 5 新/ 370쪽  
半洋裝/ 8,000원
- 19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A 5 新/ 244쪽  
半洋裝/ 5,600원
- 20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A 5 新/ 214쪽  
半洋裝/ 4,600원
- 21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A 5 新/ 410쪽  
半洋裝/ 9,000원
- 22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共著 A 5 新/ 194쪽  
M. 로머 共著 半洋裝/ 4,000원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A 5 新/ 306쪽  
半 洋 裝/ 7,000원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A 5 新/ 204쪽  
半 洋 裝/ 4,600원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共著 A 5 新/ 166쪽  
朴竣卿 半 洋 裝/ 3,600원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26

洪思媛 著 A 5 新/ 198쪽  
半 洋 裝/ 4,600원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共著 A 5 新/ 250쪽  
林栽煥 半 洋 裝/ 5,600원

28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A 5 新/ 180쪽  
半 洋 裝/ 4,000원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A 5 新/ 192쪽  
半 洋 裝/ 4,600원

30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A 5 新/ 470쪽  
半 洋 裝/ 10,600원

3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A 5 新/ 410쪽  
半 洋 裝/ 9,000원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A 5 新/ 272쪽  
半 洋 裝/ 6,000원

33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A 5 新/ 236쪽  
半 洋 裝/ 5,000원

34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共著 A 5 新/ 270쪽  
M.S. 밀즈 半 洋 裝/ 6,000원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A 5 新/ 308쪽  
半 洋 裝/ 7,000원

36 韓國工業化과 靛과 그 要因

金光錫 著 A 5 新/ 272쪽  
半 洋 裝/ 6,000원

37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清 共著 A 5 新/ 336쪽  
金學泳 半 洋 裝/ 7,600원

38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外 A 5 新/ 272쪽  
N.F. 맥긴 半 洋 裝/ 6,000원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크루거 著 A 5 新/ 256쪽  
田英鶴 譯 半 洋 裝/ 5,600원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40

朴宗淇 編 A 5 新/ 414쪽  
半 洋 裝/ 9,000원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41

朴宗淇 編 A 5 新/ 384쪽  
半 洋 裝/ 8,600원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1910~75

42

A. Keidel 著 A 5 新/ 268쪽  
半 洋 裝/ 6,000원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共著 A 5 新/ 396쪽  
潘性執 半 洋 裝/ 9,000원  
D.H. 퍼킨스

44 需給構造와 物價政策

李 煥 著 A 5 新/ 288쪽  
半 洋 裝/ 6,600원

45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の 役割

司空壹 共著 A 5 新/ 410쪽  
L.P. 존스 半 洋 裝/ 9,000원

- 46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清 著 A 5 新/ 214쪽  
半洋裝/ 4,600원
- 47 **韓國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外 A 5 新/ 530쪽  
E.S. 메이슨 半洋裝/ 11,600원
- 4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A 5 新/ 228쪽  
半洋裝/ 5,000원
- 49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A 5 新/ 432쪽  
半洋裝/ 9,600원
- 50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共著 A 5 新/ 428쪽  
閔載成 半洋裝/ 9,600원
-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共著 A 5 新/ 402쪽  
李軫周 半洋裝/ 9,000원
- 52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 레페토 外 A 5 新/ 328쪽  
金善雄 半洋裝/ 7,000원
- 53 **韓國의 金融發展: 1945~80**  
D.C. 콜 共著 A 5 新/ 334쪽  
朴英哲 半洋裝/ 7,600원
- 54 **韓國의 貨金構造**  
朴烜求 共著 A 5 新/ 440쪽  
朴世逸 半洋裝/ 10,000원
-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共著 A 5 新/ 238쪽  
朴竣卿 半洋裝/ 5,400원
- 56 **轉換期の 韓國經濟와 金融政策**  
金重雄 共著 A 5 新/ 354쪽  
南相祐 半洋裝/ 8,000원
- 57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延河清 著 A 5 新/ 348쪽  
半洋裝/ 8,000원
- 58 **地方財政調整制度와 財源配分**  
李啓植 著 A 5 新/ 280쪽  
半洋裝/ 6,000원
- 59 **벤처캐피탈의 役割과 課題**  
姜文秀 著 A 5 新/ 236쪽  
半洋裝/ 5,000원
- 60 **家計貯蓄과 租稅政策**  
李啓植 著 A 5 新/ 366쪽  
半洋裝/ 8,000원
- 61 **韓國의 公企業管理政策**  
宋大熙 著 A 5 新/ 310쪽  
半洋裝/ 8,400원
- 62 **韓國經濟의 歷史的 照明**  
具本湖 編 A 5 新/ 368쪽  
半洋裝/ 11,000원
- 63 **分配不均等の 實態와 主要政策課題**  
權純源 外 A 5 新/ 462쪽  
高日東 半洋裝/ 12,000원
- 64 **韓國 財閥部門의 經濟分析**  
丁炳然 共著 A 5 新/ 324쪽  
梁英植 半洋裝/ 9,200원
- 65 **市場去來의 規制와 競爭政策**  
申光湜 著 A 5 新/ 426쪽  
半洋裝/ 12,000원
- 66 **企業結合—經濟的 效果와 規制**  
李奎億 共著 A 5 新/ 506쪽  
朴炳亨 半洋裝/ 11,000원

## 新 刊 案 內

韓國 完成車業體의 部品業體 育成戰略과 部品業體의 對應

半洋裝 / A5新 / 86쪽 / 定價 2,800원

丁 振 聲 著

財政統計資料集

半洋裝 / B5 / 314쪽 / 定價 14,000원

財政福祉室 編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4)

半洋裝 / A5新 / 384쪽 / 定價 11,000원

盧 基 星 編  
柳 一 鎬

公正去來法上 課徵金 및 損害賠償制度의 發展方案

半洋裝 / A5新 / 94쪽 / 定價 2,800원

崔 鍾 元 著  
金 鉉 宗

美日構造調整協議의 展開와 競爭政策

半洋裝 / A5新 / 256쪽 / 定價 8,600원

崔 鍾 元 著

外國人直接投資와 投資政策

半洋裝 / A5新 / 256쪽 / 定價 9,200원

李 弘 求 著

中小企業 人力政策의 研究

半洋裝 / A5新 / 134쪽 / 定價 3,400원

崔 燉 吉 著

地方의 國際化 推進戰略

半洋裝 / A5新 / 96쪽 / 定價 3,200원

金 鍾 基 著  
周 成 載

## KDI 圖書會員制 案內

###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研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을 郵送함.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 會 費 : 100,000원

### 加入方法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拂入하거나,  
·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 : 010983 - 31 - 0514919)에 拂入하면 됨.

### 問 議 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 130-012  
KDI발간자료상담실(Tel. 960/3283, 960/4811(交) 305)